

MY BIBLE FIRST B34

꿀 벌 제자들을 부르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기쁘게 전할 것입니다.

목차



01 성경말씀 회상하기

02 중심생각 연결하기

03 천연계로 확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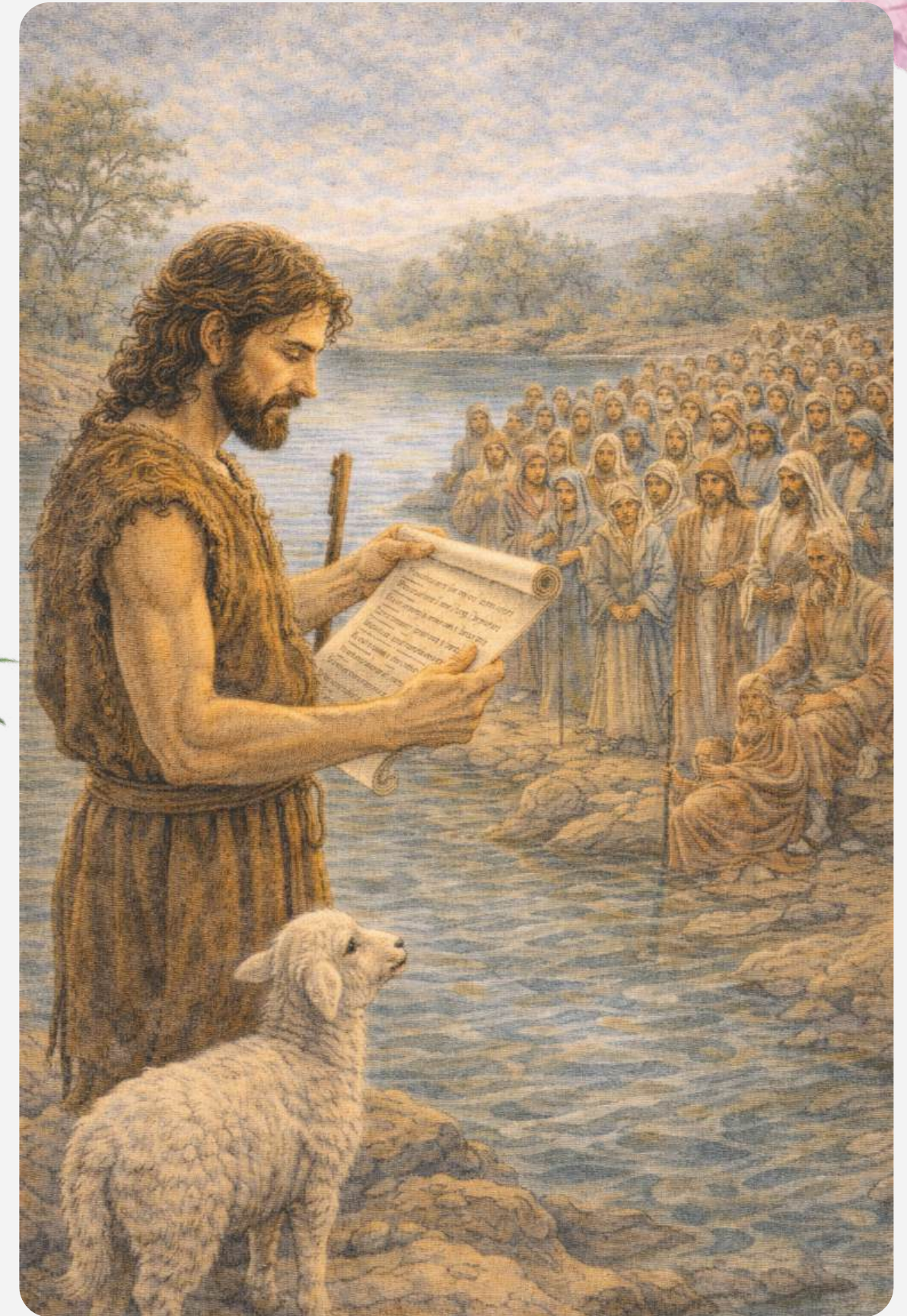
04 성경학습활동 1

05 성경학습활동 2

침례 후 요한은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왜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말씀하지 않으실까?”
요한은 예언을 더 열심히 연구했어요.

메시아가 “어린 양”과 같다는 말(이사야
53:7)의 뜻도 생각했지요.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요한은 계속 말씀
을 전했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들었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와서
요한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엘리야인가요? 모세인가요?
메시아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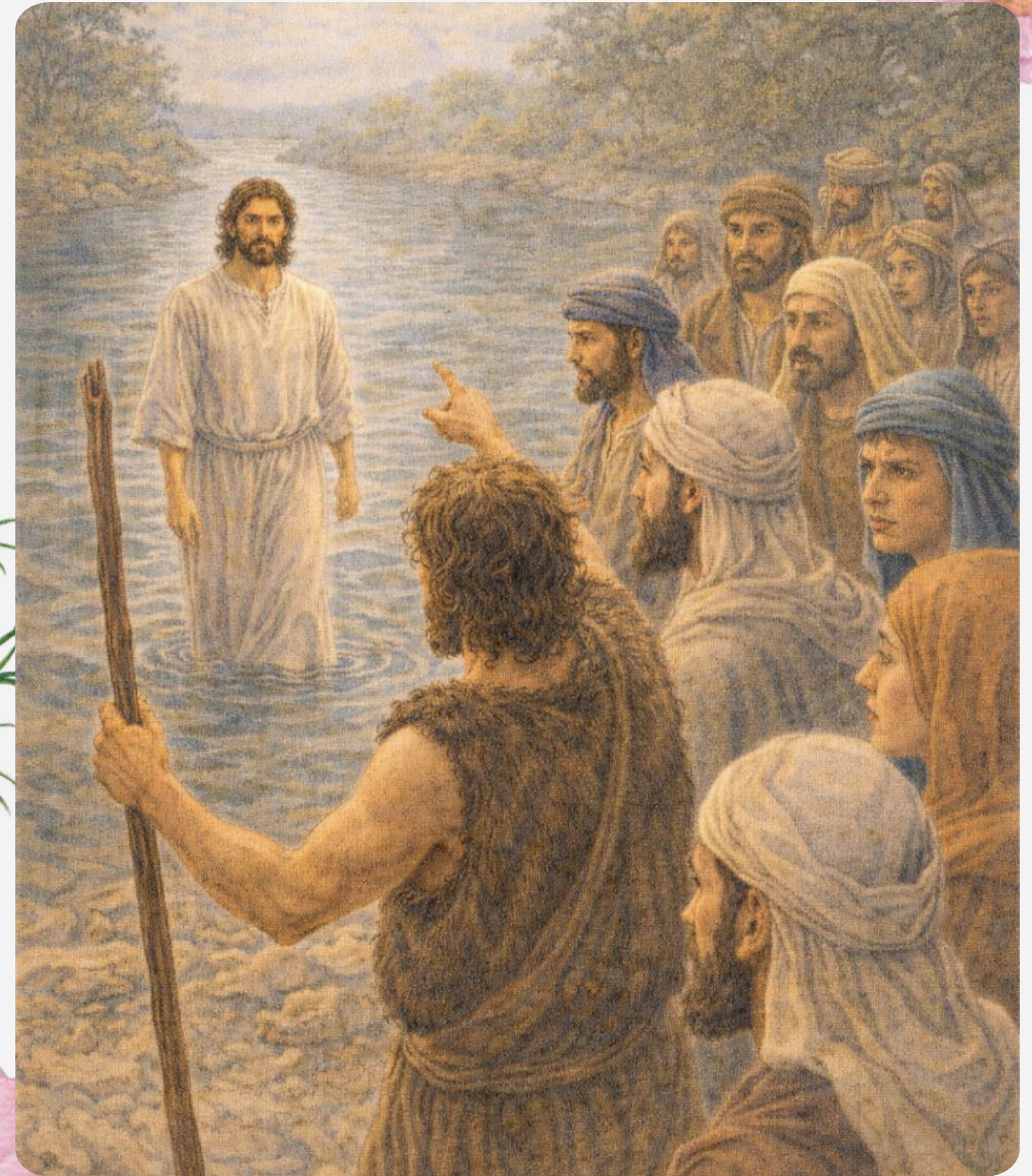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23)



그때 요한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은 기쁘게 예수님을 가리켰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평범해 보여
혼란스러워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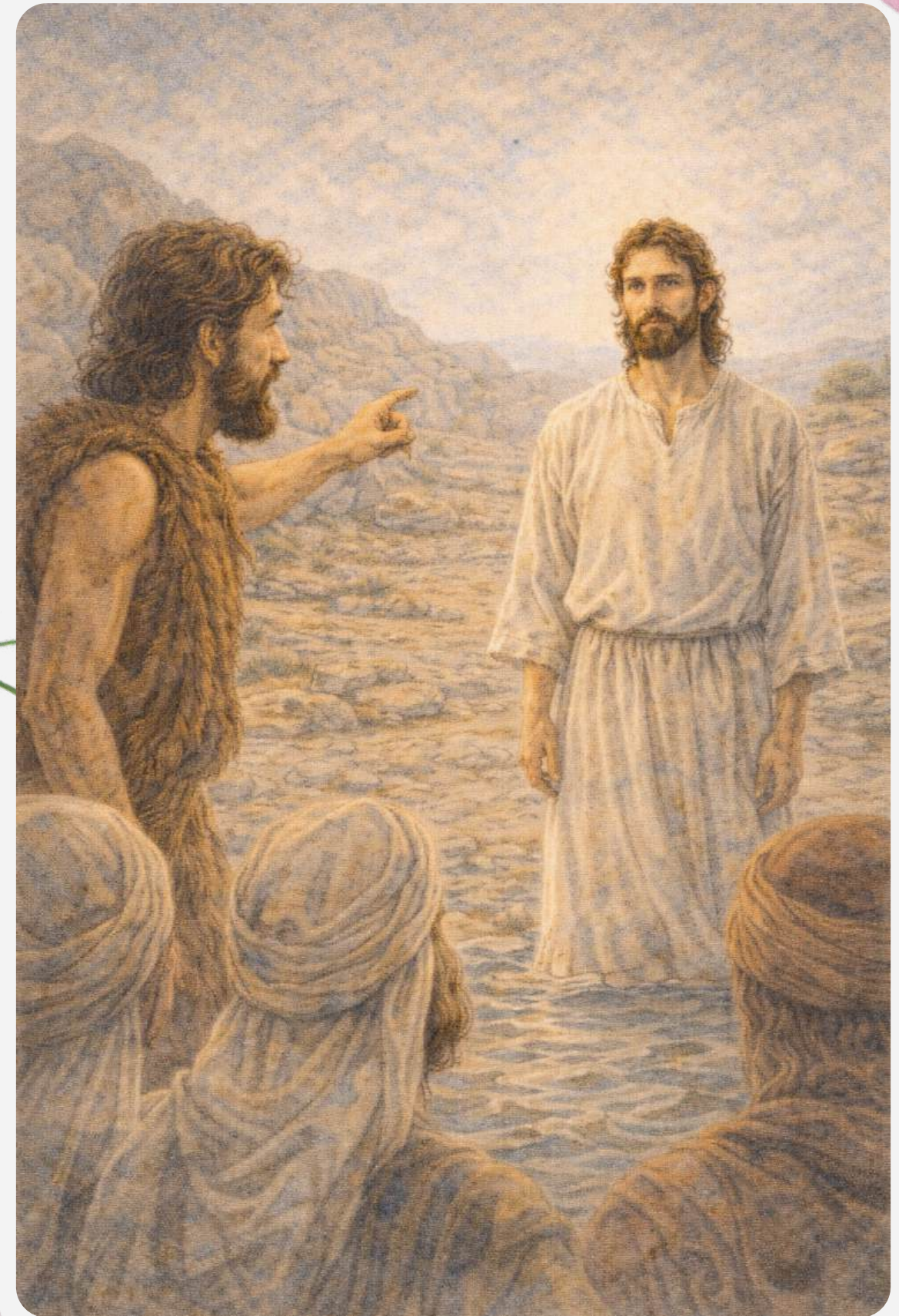
겉모습만 보면 특별한 점이
없어 보였거든요.



다음 날 요한은 다시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29)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래 지내
얼굴이 야위어 보였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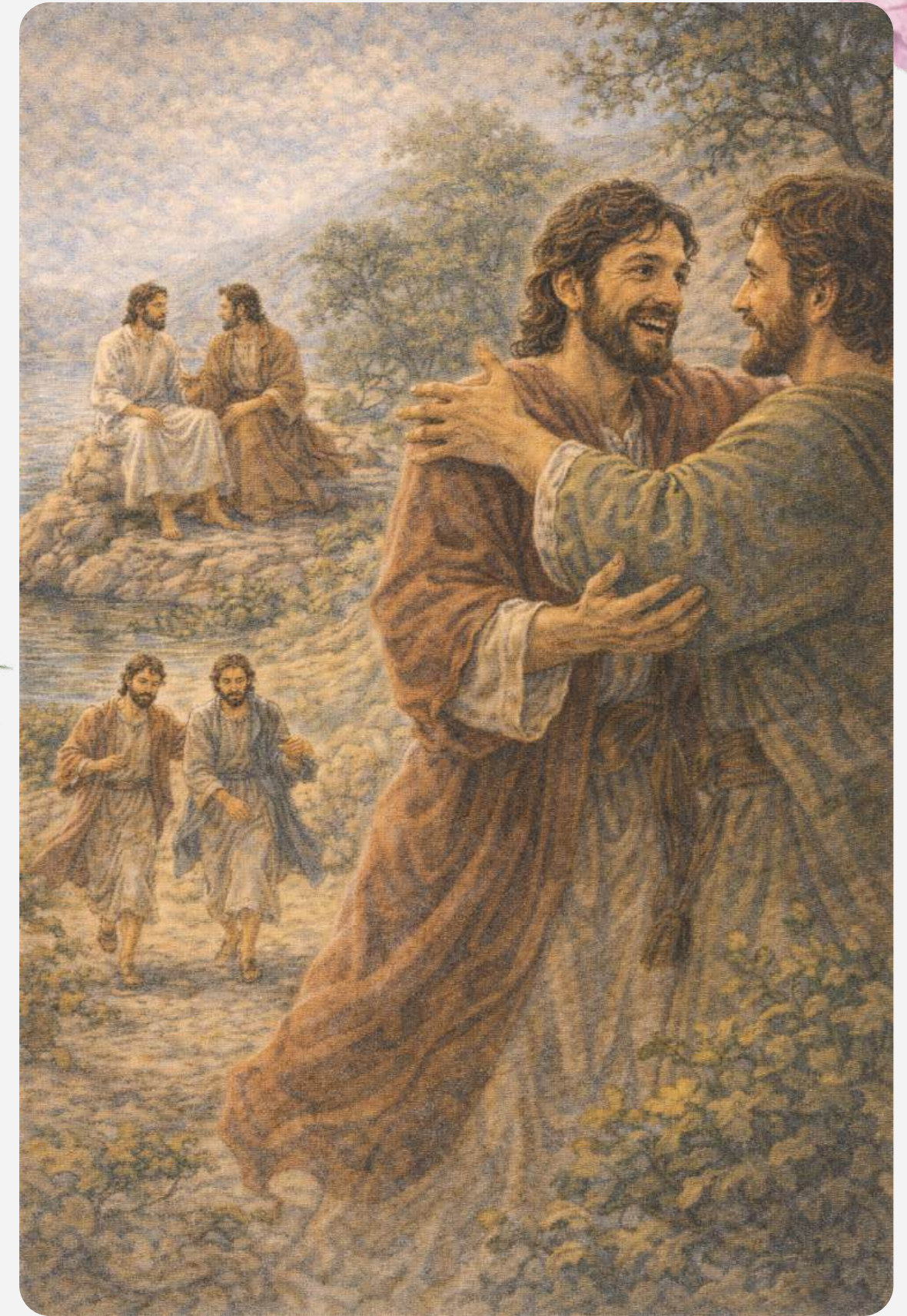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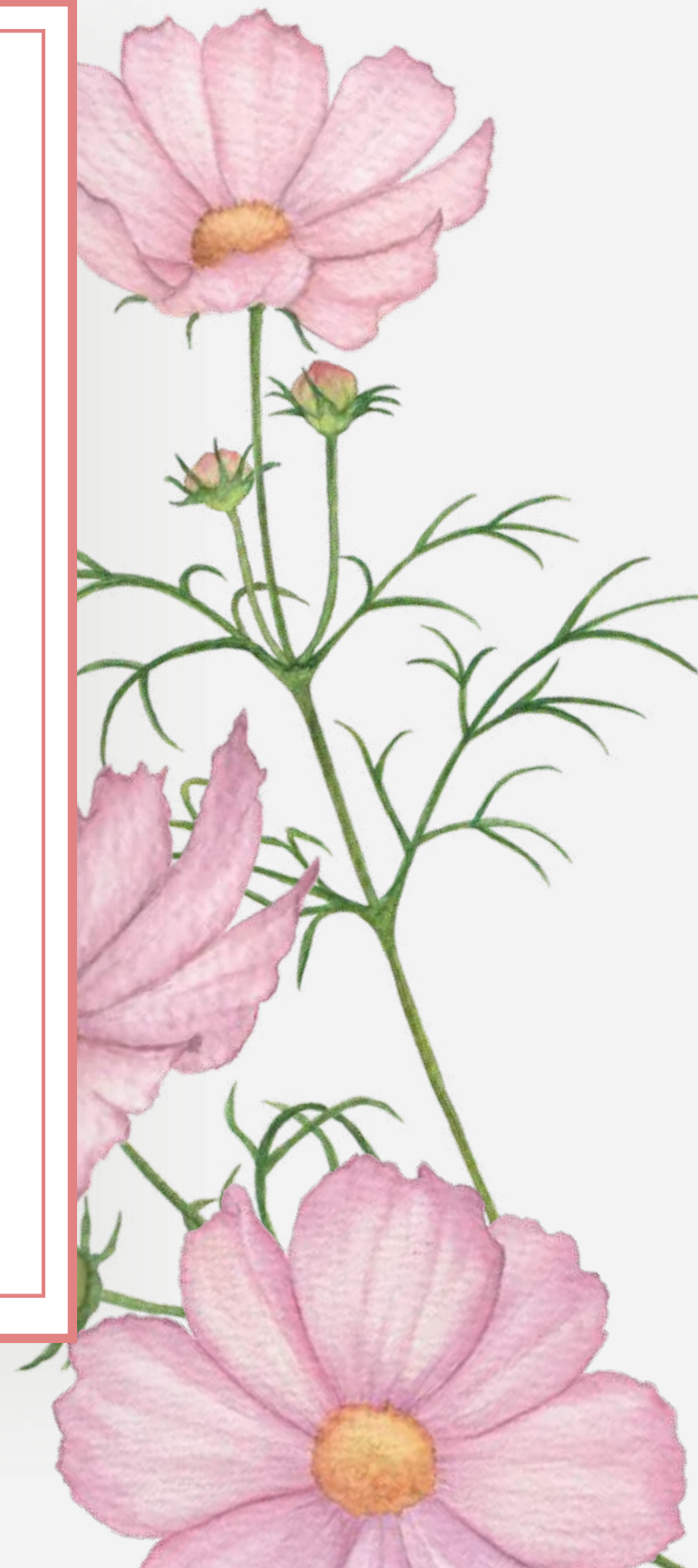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따뜻함과
설명할 수 없는 권위를 느꼈어요.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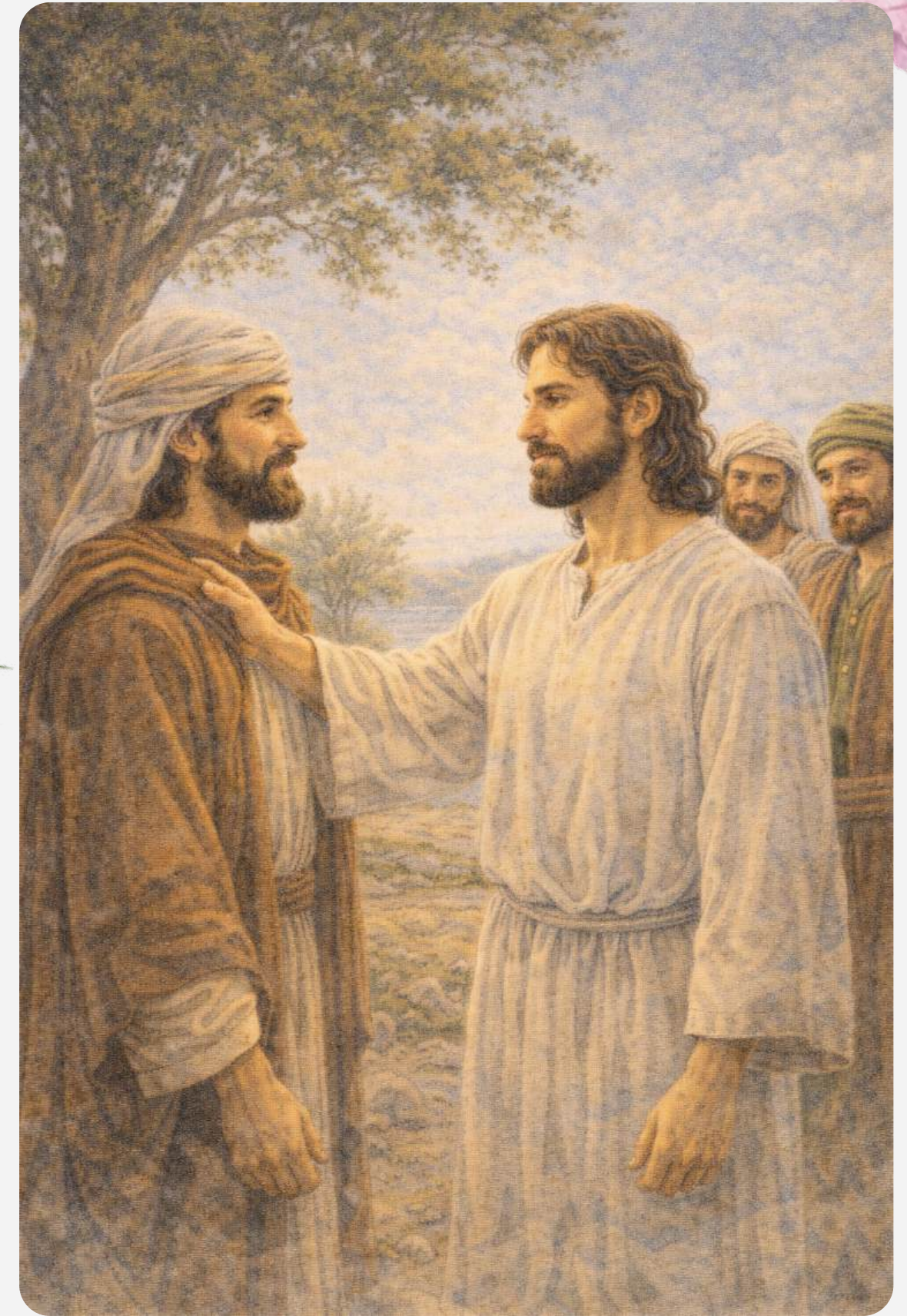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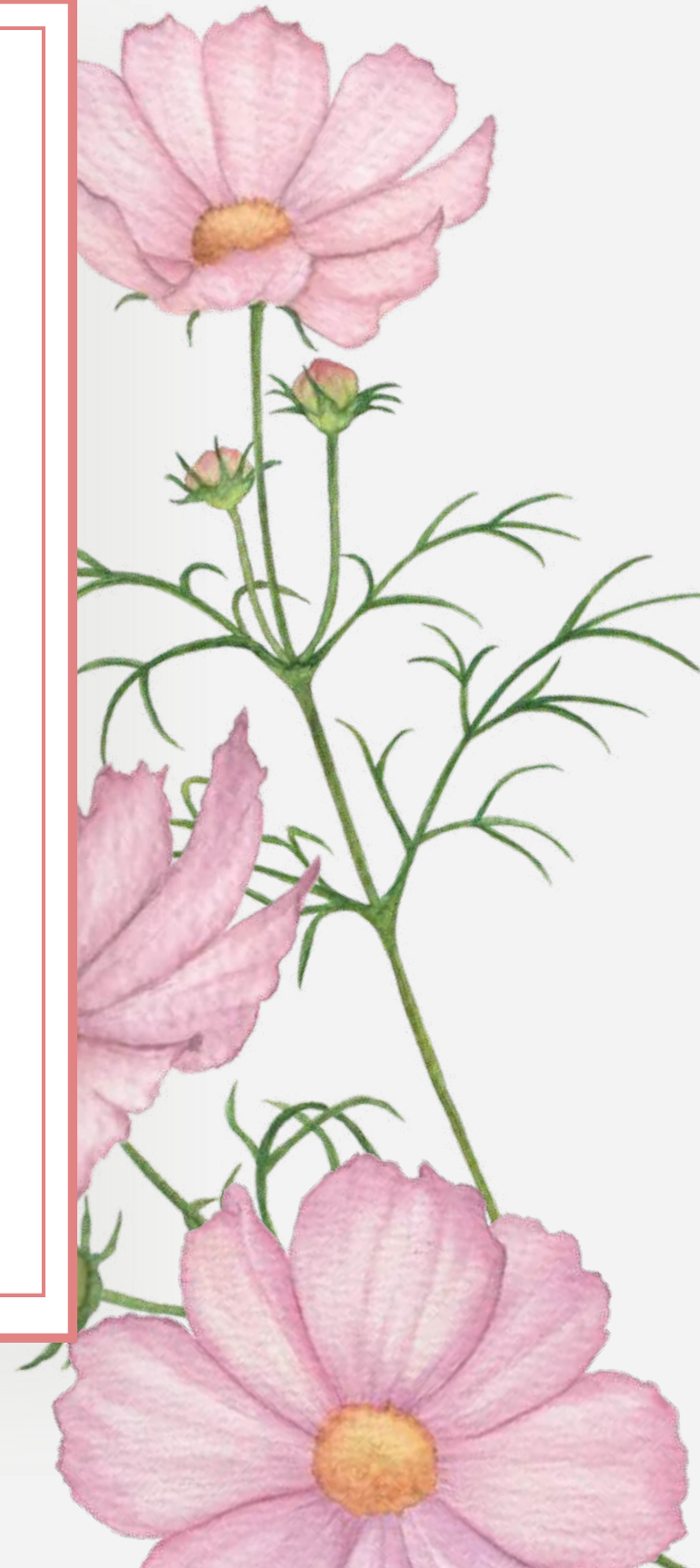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안드레는 기쁜 마음으로
형 시몬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요한복음 1:4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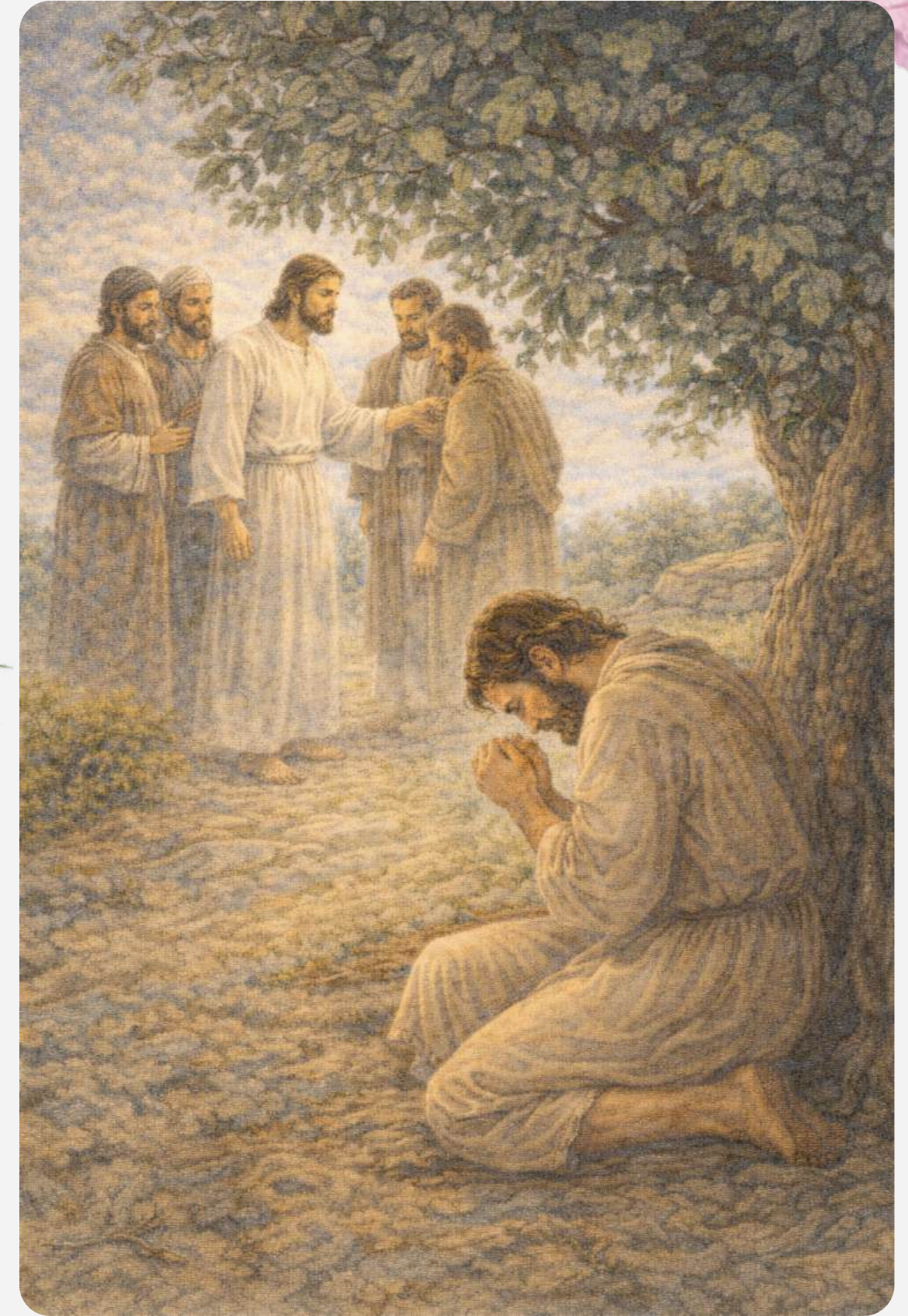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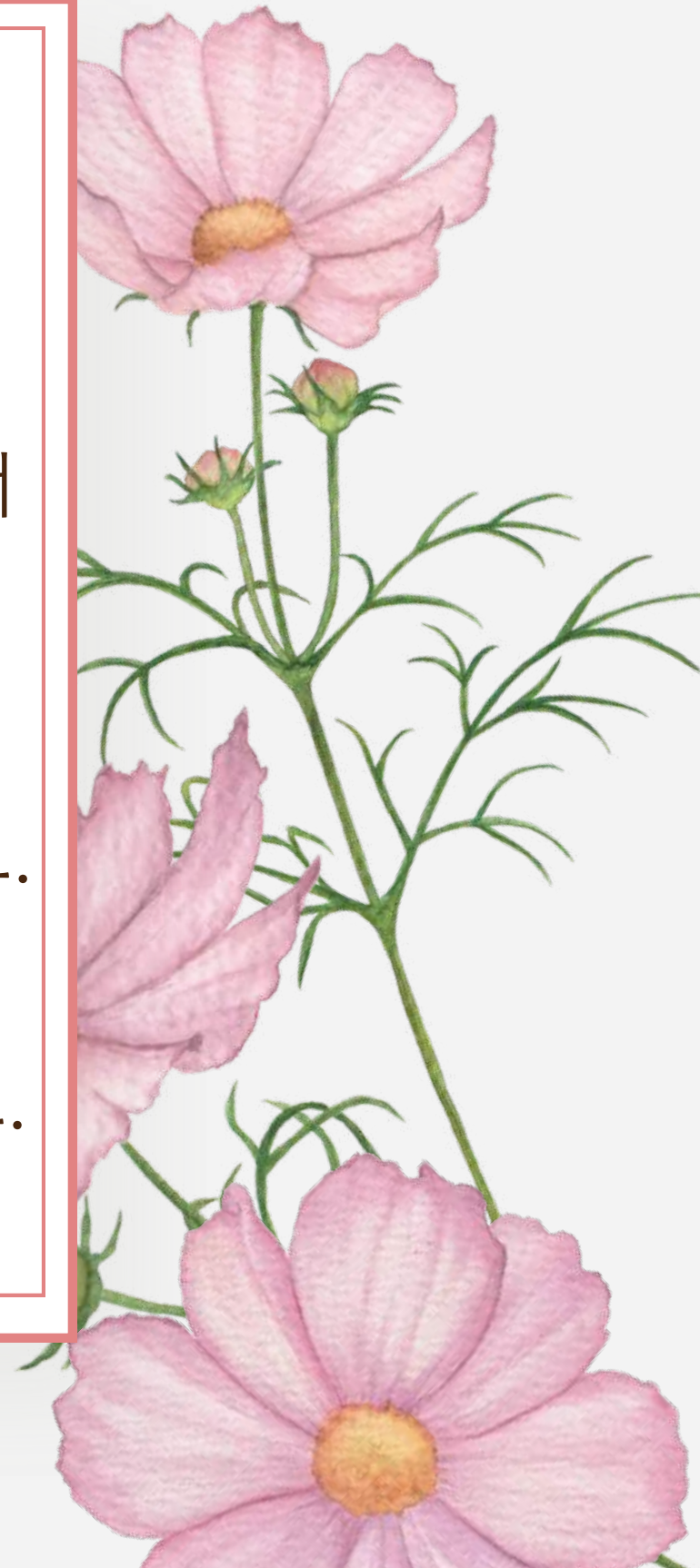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이어서 빌립도 예수님을 따랐고,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데려왔어요.



나다나엘은 처음엔 실망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겠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은 놀라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다섯 제자가 생겼고,
작은 무리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어요.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즙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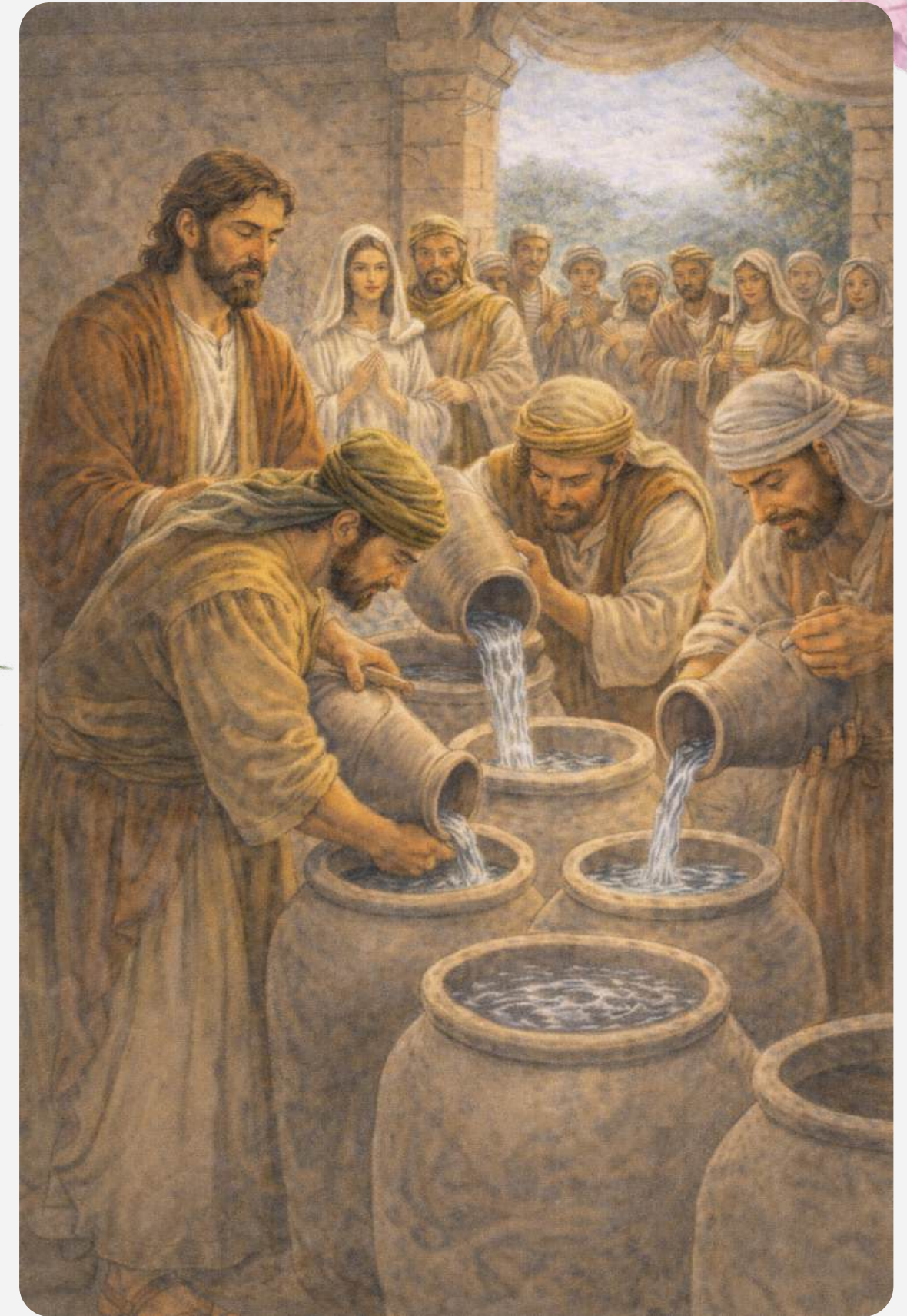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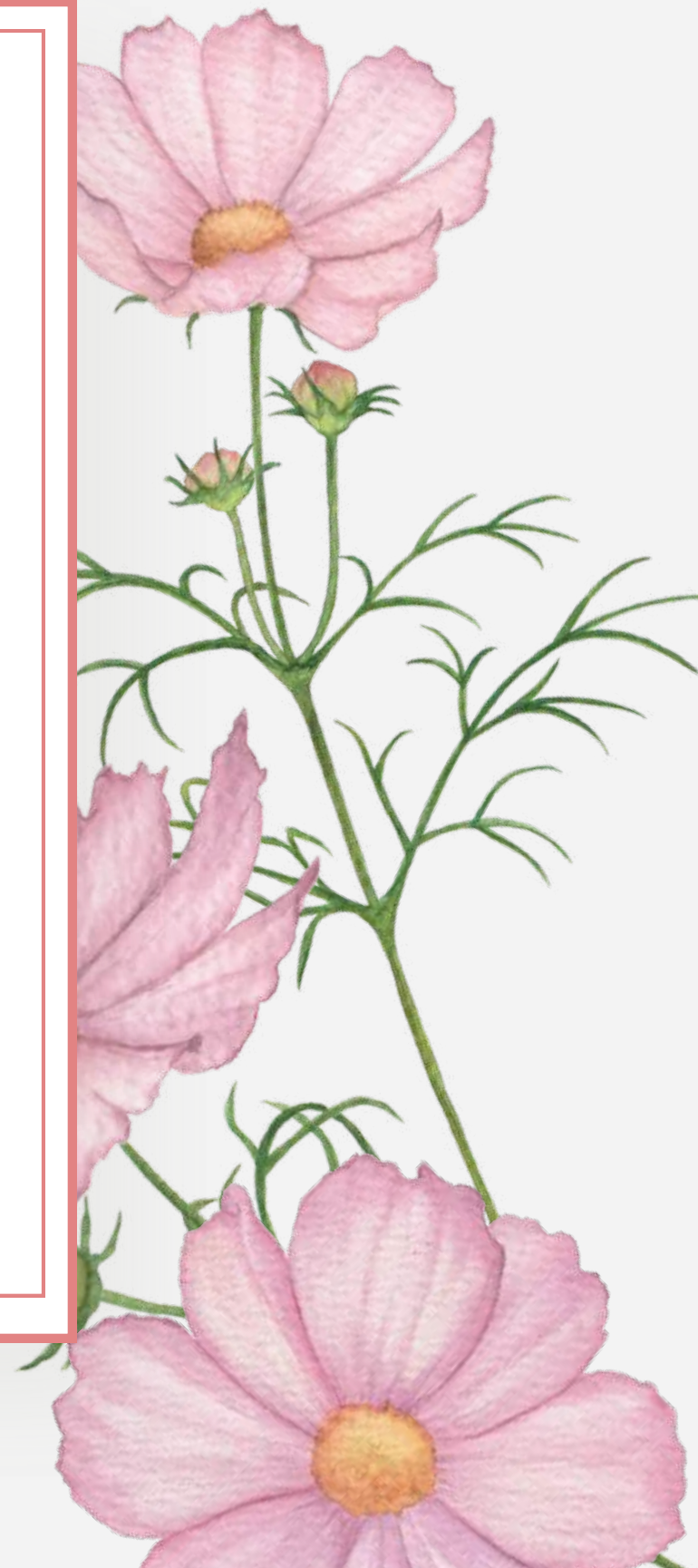
예수님은 돌 물통에 물을 채우게 하셨어요.

그 물은 놀랍게도

가장 좋은 포도즙으로 변했어요!

이 첫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2:11)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누가복음 8장 39절)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되어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게 될 것입니다.



꿀벌



꿀벌은 좋은 꽃을 발견하면 혼자 가지 않고 춤으로 다른 벌들에게 알려요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보자 혼자 간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리켜 주었어요

꿀벌의 춤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꽃이 있는 방향을 알려 주는 신호예요
요한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손으로 가리켰어요

꿀벌 가족은 얼마나 클까?



꿀벌은 보통 아주 큰 무리로 함께 살아요.
그래서 벌집 안이 잘 돌아가려면, 각자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해요.
그중 가장 중요한 일 하나는 “꿀 재료를 찾는
것”이에요.

꽃밭을 찾는 ‘탐험벌’



어떤 벌들은 벌집 밖으로 나가 꽃을 찾는 특별한 임무를 맡아요.

활짝 핀 꽃에서 꿀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모으고,
다시 벌집으로 돌아와요.

혼자 찾는 게 아니라 “찾았다는 소식”도 가져오는 거예요.

혼자 나르면 너무 힘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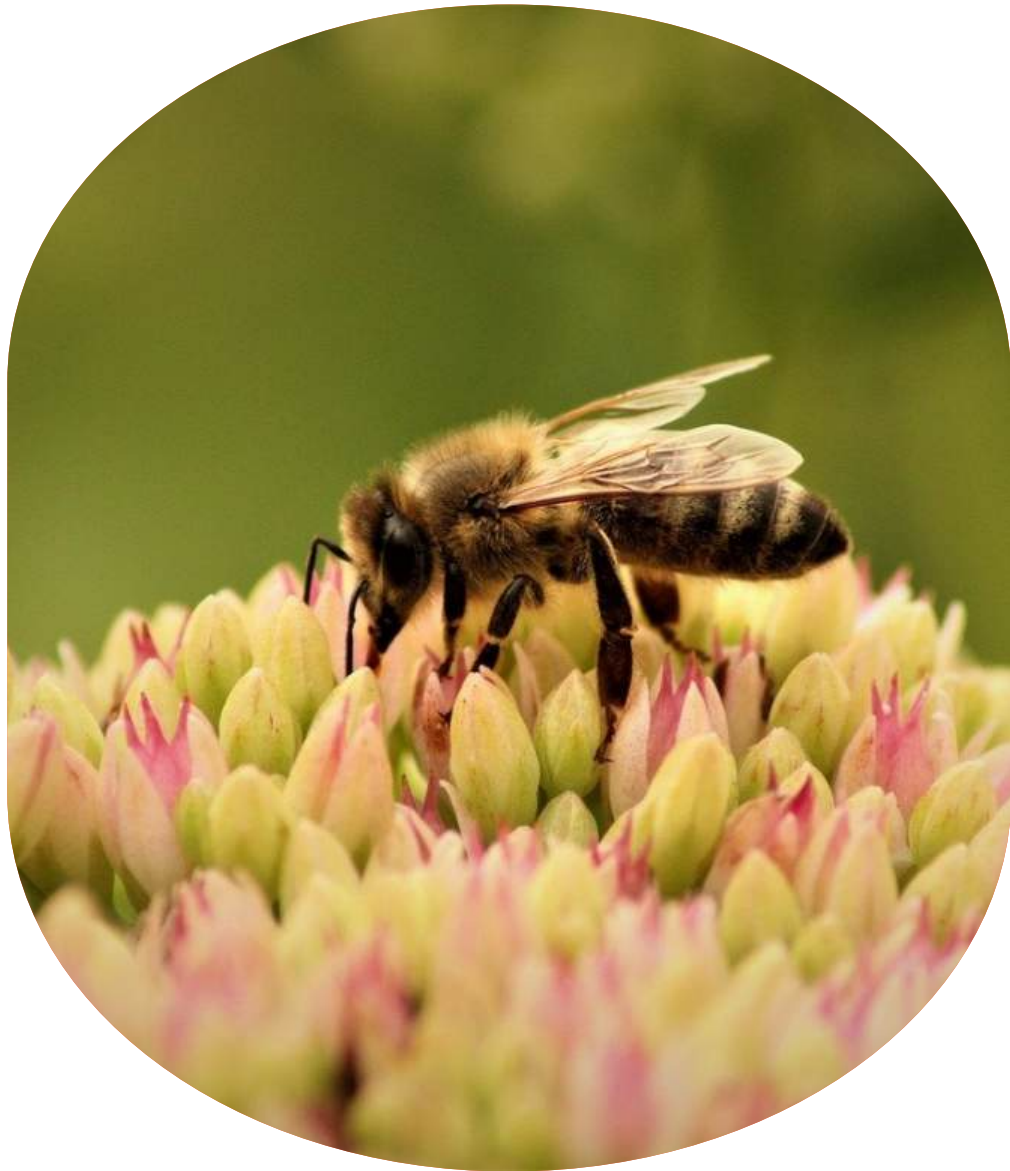


만약 한 마리가 꽃이 많은 들판을 찾아 혼자만 왔다 갔다 한다면 정말 분주할 거예요.

그래서 꿀벌은 더 똑똑한 방법을 써요.

“좋은 곳을 함께 가자!” 하고 다른 벌들을 부르는 거예요.

꿀벌의 비밀: 춤으로 말해요



꿀벌은 벌집 안에서 특별한 춤을 춰요.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배를 흔들기도 하면서, “좋은 꽃
밭이 있다!”를 알려줘요.
이 춤은 장소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먼지, 어느 방향
인지까지 알려주는 신호예요.

왜 굳이 알려줄까? 서로 도우니까!



이렇게 정보를 나누면 다른 벌들도 좋은 꽃밭을 알게 되고 함께 모을 수 있어요.
그럼 벌집은 더 빨리, 더 많이 꿀을 만들 수 있겠죠.
꿀벌에게 '좋은 소식 공유'는 생존의 지혜예요.

좋은 소식은 퍼져요



사람들도 기쁜 소식을 들으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져요.

“나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쁜 소식은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이 힘을 얻어요.

초대가 초대를 낳아요



한 사람이 누군가를 부르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올 수 있어요.
작은 초대 하나가 점점 큰 모임이 되는 것처럼요.
꿀벌 군락도, 사람 공동체도 이렇게 커져요.

안드레처럼 ‘데려오기’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말했어요.

빌립도 나다나엘을 “와서 보라”고 초대했어요.

꿀벌이 춤으로 좋은 꽃밭을 알려 주듯,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가장 좋은 소식을
친구에게 전하고 초대할 수 있어요.

말씀을 찾아가는 꿀벌의 춤

꿀벌은 꿀이 있는 곳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아요.

자신이 찾은 꿀의 위치를 춤과 몸짓으로

다른 벌들에게 알려 주지요.

그 춤을 따라간 벌들은 함께 꿀을 얻고,

모두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닮아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혼자 간직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함께 전하고, 함께 초대하며, 함께 길을 가도록 보내셨어요.

오늘은 꿀벌의 춤을 따라 말씀을 찾아가 보며,

가장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말씀을

친구와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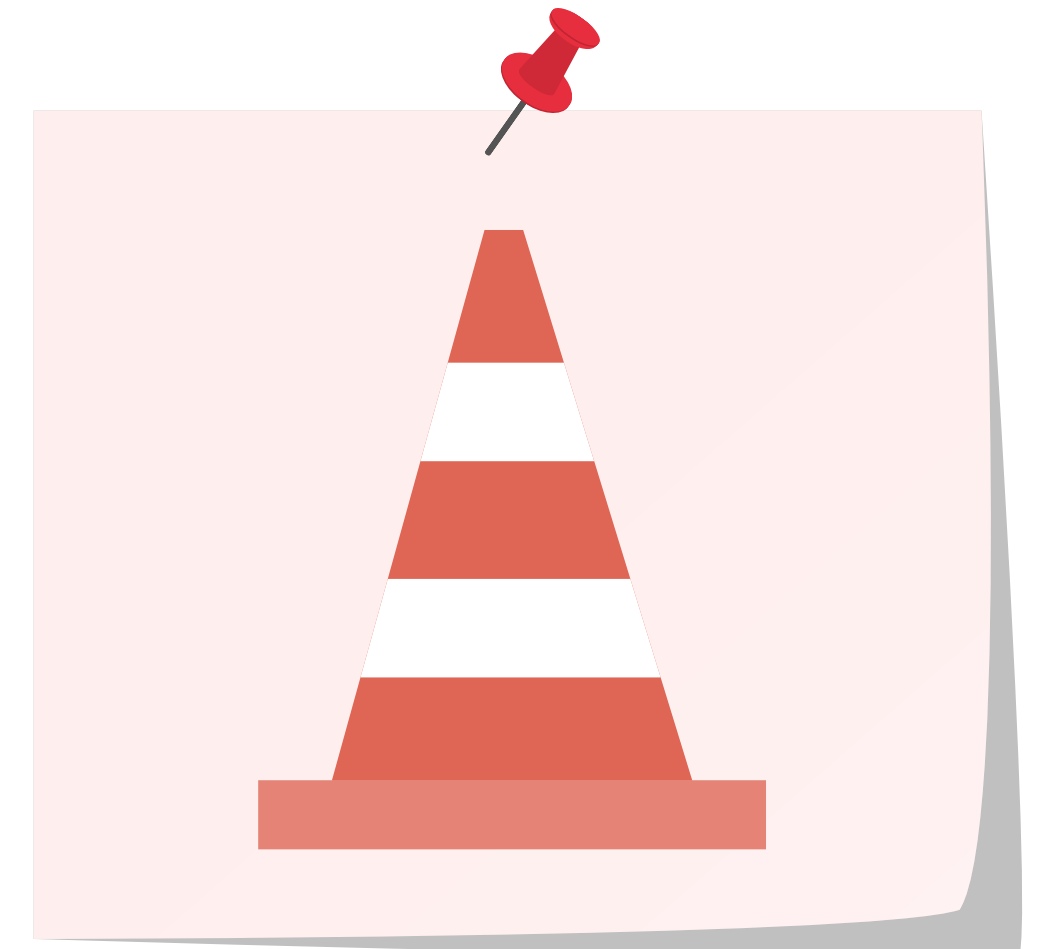
준비물



말씀 카드



역할 머리띠 or 목걸이



바닥 표시 도구

활동 방법

1. 말씀 내용을 되돌아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보내셨을까요, 둘씩 보내셨을까요?
-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을까요?
-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길 바라셨어요.

2. 오늘 할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 꿀벌은 좋은 꽃을 찾으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 꿀벌에게 꽃은 좋은 소식과 같아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 오늘은 우리가 꿀벌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친구들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활동 방법

3. 말씀을 찾아가는 꿀벌의 춤 활동에 참여한다.

- (1) 교사는 실외에 말씀 카드를 하나 숨긴다.
- (2) 한 명은 '꿀벌', 나머지는 '꿀벌 친구들' 역할을 맡는다.
- (3) 교사는 꿀벌에게만 말씀 카드의 위치를 조용히 알려 준다.
- (4) 꿀벌은 말하지 않고, 정해진 장소에 서서 몸짓·방향·손짓으로만 위치를 알려 준다.
- (5) 꿀벌 친구들은 꿀벌의 춤을 보고 말씀 카드가 있는 곳으로 함께 이동한다.
- (6) 카드를 찾은 뒤, 모두 함께 말씀을 읽는다.

4. 역할을 바꾸어 활동에 참여한다.

활동 방법

5.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나누고 마무리한다.

- 꿀벌 역할을 하고, 친구가 말씀을 찾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 친구의 몸짓을 보며 말씀을 찾아갈 때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 혼자 찾는 것과 친구와 함께 찾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었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함께 보내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함께 나눌 때 더 기쁘고 든든해져요.

오늘 꿀벌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찾은

꿀벌



말씀 찾는

꿀벌 친구

말씀 카드 도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14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12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13

말씀 카드 도안

"미움은 다름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12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요한복음 15:13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8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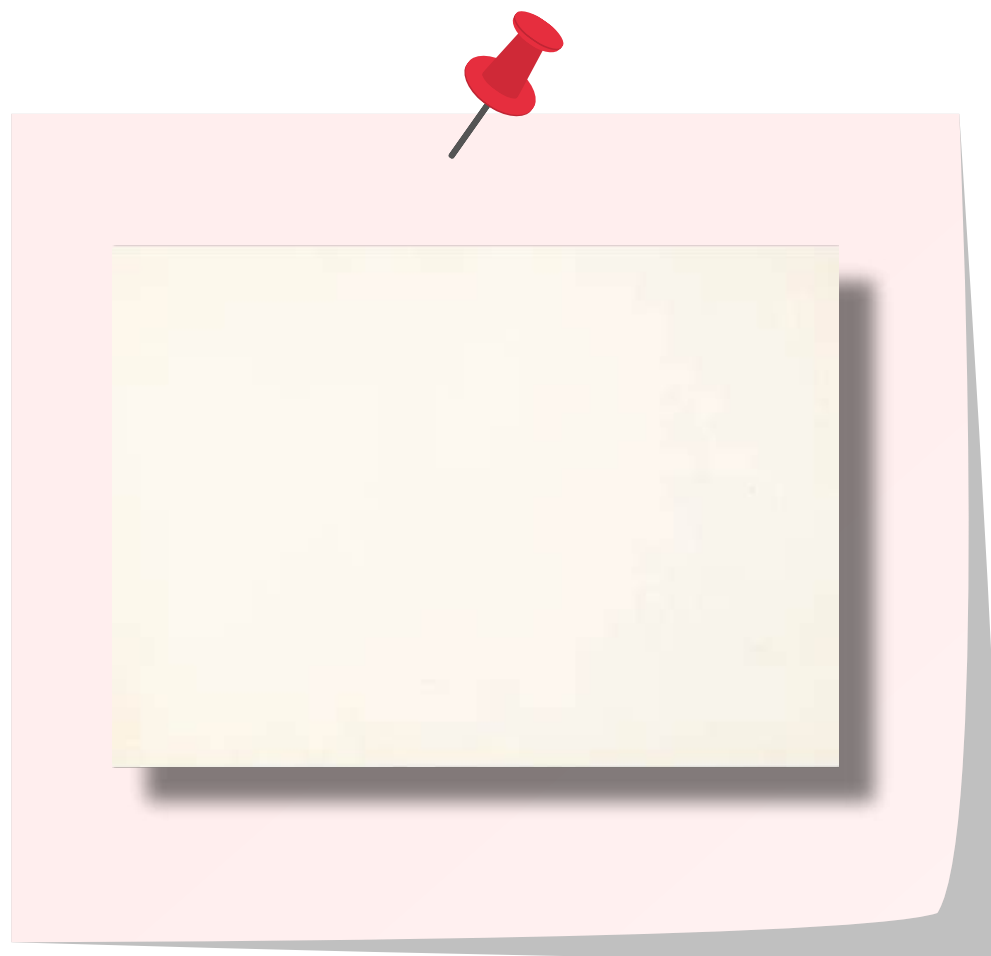
우리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서 함께 지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사랑을 직접 경험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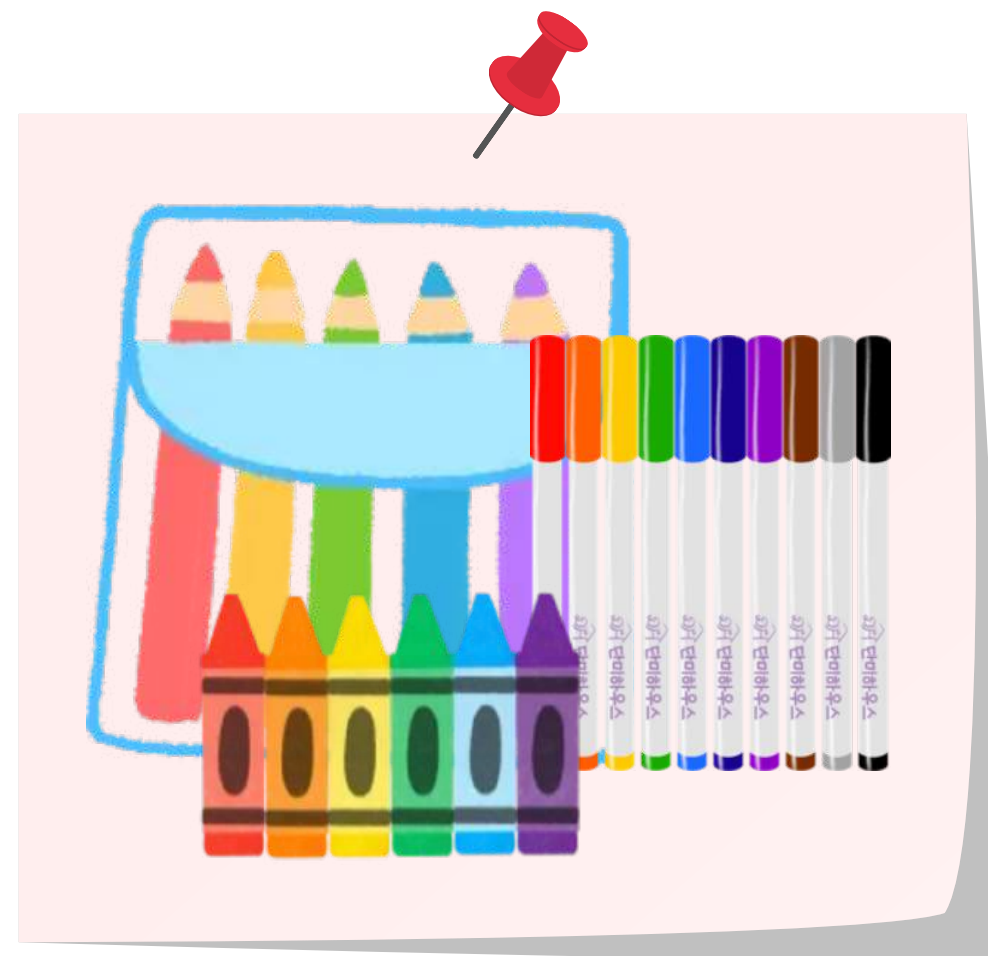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제자들은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기쁘게 전할 수 있었지요.

오늘은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성경 이야기 속에서 알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고,
친구에게 전해 줄 수 있는 작은 선물로 만들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준비물



엽서 종이



색칠도구

활동 방법

1. 말씀 내용을 되돌아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되었을까요?
- 말씀을 가르치실 때, 병자를 고치실 때, 사람들을 사랑하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졌을까요?

2. 오늘 할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요.
-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았나요?
- 제자들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것 처럼,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을 그림과 글로 표현해서
친구에게 전해 줄 수 있는 작은 선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활동 방법

3. 엽서 편지 위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림과 글로 표현한다.
 - 예수님의 모습이나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 그림 옆이나 안쪽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글이나 짧은 문장으로 적어 본다.
4. 내 작품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 내가 그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 왜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그리게 되었나요?
 - 친구의 그림 속 예수님과 내 그림 속 예수님은 어떤 점이 비슷하거나 다른가요?

활동 방법

5. 느낀 점을 나누며 활동을 정리한다.

- 제자들이 각자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새롭게 알게 된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나요?
- 내가 만든 이 작은 선물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각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만남은, 나눌 때 더 따뜻해지고 더 멀리 전해질 수 있어요.”